

양계안테나



장성영 기자



산란계 산업 경기 회복을 위해 자조금 동참 절실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계란가격으로 매년 채란농가의 경영상황도 들쭉날쭉 변동이 크다. 국내 사육 수수 증가는 곧 난가 불안으로 이어져 금년만 해도 매달 열개소가 넘는 산란계 농가들이 폐업 또는 휴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축산업이 전업화·전문화 되면서 농가당 사육규모는 커졌지만 경영상황 악화로 고정수익이 줄어들면서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농가는 결국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금 당장 무리한 투자를 해서라도 이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다 보니 덩치만 커졌지 부채 역시 농가 스스로 떠맡는 상황이다.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계란 유통구조개선'의 시급함이 강조되었고 본회를 비롯해 정부와 농협이 나서 지역별 계란 집하장 즉, 계란 컨트롤 타워를 위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산업구조개선과 정책변화를 위해 본회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모 기사 내용을 보니 자조금 거출 독려를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직원이 도계장을 방문해 자조금 거출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도계장 대표는 회사 경영상 어려움과 개인 건강악화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산란계 산업 발전을 위해 계란자조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초기에는 자조금도 착실히 납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납의 가장 큰 요인은 농가들이 도계장에서 자조금을 제하고 닭 값을 지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한 것은 산란노계 도계장에서 자조금 납부를 미루거나 대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는 채란농가 스스로의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몇 일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자조금 조성액은 11월 중순 현재 이월금 9천200만원을 포함한 농가거출금 9억1천300만원과 정부지원금 7억원으로 총 16억1천300만원이었고 올해 거출률은 청구액 12억4천만원 중 8억5천500만원이 거출되어 69%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연말까지 최대한 납부를 독려하더라도 계획대비 80% 거출을 겨우 채울 것으로 보여진다. 농가가 직접 투표를 실시해 지역별 대의원을 선출하고 거출과 집행의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거출된 자조금은 남을 돕기 위한 기금이 아니라 채란농가 스스로를 위해 쓰이는 사업금액이니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산란계산업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협회·기관의 정책적인 사안도 중요하지만, 거출률 향상으로 계란자조금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채란산업을 보호하고 계란 소비촉진을 이끌어 내 채란농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채란농가들이 자조금 사업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적극 동참한다면 불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양계**